

“국민·민주·오월정신의 승리” 광주·전남 각계 환영



윤석열 대통령의파면이 결정된4일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뉴스

위헌적 12·3 계엄으로 헌정 질서를 위협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4일 광주 지역 시민사회가 한목소리로 환영하며 조속한 국정 안정을 염원했다.

내란 세력에 대한 엄정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거나,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분야별 개혁 과제도 제안했다.

지역 186개 시민단체가 꾸린 윤석열 정권 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이날 파면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민주주의가 독재의 망령을 물리치고 또 한 번 승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승리는 3·1만세운동의 함성과 4·19항쟁,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1987년 6월 항쟁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의 역사와 연결돼 있다. 민주주의를 향한 도도한 역사 물결이 만들어낸 파도”라고 했다. 광장에서의 연대와 나눔

‘122일 탄핵 투쟁’ 시민사회단체 “민주주의의 승리”
 5·18단체 “헌법 짓밟고 역사 거스른 반역자 심판”
 “국민 이겼다” 각계 환영… 내란 수사·엄벌도 촉구
 노동·농민·환경·의료·교육 등 개혁과제 완수 강조

에 대해서도 열거하며 “5월 대동정신의 부활”로 자평했다.

헌법을 부정하고 내란을 옹호한 현 여당 국민의힘과 서울서부지법 습격 내란·선동 세력에 대해서도 법적 심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2·3계엄에 45년 전 계엄군 트라우마가 되살아나며 고통과 분노 속에 122일을 보낸 5·18민주화운동 단체들도 일제히 파면을 받았다.

5·18민주화운동 공범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모자회)와 5·18기념재단은 “헌정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대통령의 몰락이자 국민이 직접 쓴 심판의 역사”라고 했다.

이어 “5·18 정신은 결코 권력에 무너지지 않았다. 전두환 정권과 맞섰던 그날처럼 다시금 권력의 폭주를 멈춰 세웠다”면서 “12·3 계엄 등에 연루된 모든 이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석열 정권이 강행했던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 방식인 ‘제3자 변제’를 줄곧 규탄해온 지원단체도 “사필귀정”이라 평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윤석열은 한 일관계 복원을 구실 삼아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 취지를 뒤집고,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피해국 한국이 떠안는 ‘제3자 변제’는 해괴망측한 짓이었다. 흥분도 흥상 철거 논란을 일으켜 독립투사를 모욕하면서도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강제징용 현장인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 군마한 조선인 추도비 철거에는 침묵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역사 정의를 외면하고 국민을 능멸한 자는 결국 준엄한 헌법의 심판을 받았다. 불의한 권력으로부터 국민주권을 되찾기 위한 위대한 시민 정신의 값진

승리”라고 자축했다.

지역 노동계는 ‘노동 존중’ 등을 담은 새로운 헌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부는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렸다는 오월 정신의 승리”라면서 민주주의를 전진시키고 우리 삶을 바꾸기 위해 낡은 87년 헌법을 바꿔야 한다. 대선 출마 후보들은 ‘불평등과 차별이 없고 노동을 존중하며 내란이 불가능한 대한민국’을 외친 광장의 요구를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남본부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결을 환영한다. 온 국민의 저항과 항쟁으로 완성한 판결”이라며 “7공화국 시대를 열어야 한다. 노동이 존중 받는 사회, 평등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모든 권력이 국민의 것이 되는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의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정권 교체를 넘어 불평등 체제 전환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계엄 발동을 전지와 재난으로만 한정하고 국회의 사전 동의제로 전환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을 국민투표로 결정하고, 판사와 검사도 오판한 법 적용에 대해 처벌 받아야 한다”며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대통령 파면을 환영하며 탈핵 국가 전환을 제안했다. 단체는 “윤 정권의 핵 산업 편향적 행보는 에너지 민주주의를 짓밟는 반시대적 폭주였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내내 생명과 생태의 가치를 훼손하고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데 앞장섰다”고 날을 세우며 탈핵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2면에 계속>

/박도일 기자

지리산 南岳祭

제81회 지리산남악제
제44회 군민의 날 행사

군민 한마당

시가행진
읍·면 입장식
군민의 날 기념식
군민 체육대회
군민 노래자랑

제례·공연 마당

남악제례
헌공다례
읍·면 농악경연대회
읍·면 율놀이 대회
길거리 씨름대회
동춘서커스 공연
백두한라예술단 초청 공연

전시·체험 마당

우리차 시음회
전통떡 만들기
민속놀이 체험
사진작가협회 작품 전시회
한국미술협회 구례지부 전시회

경연·참여 마당

남악서예백일장 및 작품전시회
남악제 글짓기 대회
내고장문화재 그리기대회
전국 정가 시조경향대회

2025. 4. 19.토 ~ 20.일

화엄사 시설지구 및 공설운동장 일원

주최·주관 | 지리산남악제 및 군민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
 후원 | 구례군 문화재청
 문의 | 061) 780-2727